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2027학년도 hyper 0.1 주간 모의고사 vol 2

• 영어영역 •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⑤	5	④
6	④	7	①	8	④	9	⑤	10	④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⑤
16	①	17	③	18	③	19	②	20	③
21	③	22	③	23	③	24	①	25	④
26	②	27	⑤	28	③	29	③	30	④
31	②	32	①	33	①	34	①	35	④
36	④	37	④	38	③	39	④	40	③
41	②	42	③	43	③	44	④	45	②

18.

해석:

워크숍 참가자 여러분께, 다가오는 환경 워크숍에 대한 큰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정기적인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 조정 방안을 신중히 고려했으나, 이를 현재 일정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실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프로그램의 일정과 장소, 그리고 논의할 내용까지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건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사무국 드림

정답: ③ 행사 연기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설:

글은 "일정과 장소를 수정한다"는 결과를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다. "several factors were identified", "impractical", "additional complications" 등의 표현이 연기 및 변경의 이유 제시에 집중되어 있다. 단순한 장소 공지(②)나 주제 변경 요청(④)이 아니라 전반적인 변경 및 연기의 배경 설명이 핵심이다.

19.

해석:

민호는 시험 전에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머무르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안을 정밀함으로 잠재우려 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그의 주의를 점차 자신의 반응을 점검하는 데서 문제 자체에 몰입하는 방향으로 옮겨갔고, 그의 답안은 예상하지 못했던 안정감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시험을 되돌아보며 그에게 남은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라, 애초부터 존재했던 명확함을 스스로 믿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다.

정답: ② nervous → confident

해설:

초반에는 "unease(불안)"를 억누르려는 모습 → nervous 상태. 이후 "steadiness(안정감)"과 "trusted the clarity"를 통해 자신감을 얻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불안 → 자신감이 가장 적절하다.

20.

해석: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의미 전달이 단어의 정확한 전달과 수용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흔히 가정된다. 마치 언어적 단위만으로 상호 이해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해석이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거나 언어 자체에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설득력을 잃는다. 표현이 구조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더라도, 그것이 추론을 이끄는 공유된 맥락적 신호 속에 놓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여전히 불확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해'란 단순히 언어 형식을 해독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식과 그것이 처리되는 더 넓은 조건들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정답: ③ 배경적 단서와 맥락이 언어적 이해에 함께 작용한다.

해설:

핵심은 "의미는 단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 맥락과 비언어적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이다. 마지막 문장 "interplay between those forms and broader conditions"가 결정적 단서로, 언어 + 맥락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③이 정확한 요지이다.

21.

해석:

르네상스 미술은 종종 종교적 개념과 철학적 개념의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결합은 단순히 기존의 아이디어를 합친 것이 아니라, 예술적 표현 속에서 의미가 전달되는 방식을 미묘하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예술적 환경에서 한 영역에서 비롯된 개념은 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을 거치며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라파엘로의 작품은 기독교 신학과 플라톤 철학의 주제를 결합하여 정신적·지적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조화를 이루었다. 종교적 서사는 여전히 주요 주제였지만, 당대 철학은 그 표현 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는 기독교적 상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의 신체와 감정의 사실성에 대한 인문주의적 관심을 드러낸다. 즉, 르네상스는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교하게 만들어진 조각상과 같았다.

정답: ③ a context where each discipline enriched the others

해설:

"crafted statue composed of varied materials"는 서로 다른 요소(종교·철학·인문주의)가 결합하여 하나의 통합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비유이다.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며 풍부해지는 구조이므로 '각 영역이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맥락'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 ① a tradition combined with mythological narratives → '신화'는 언급되지 않으며,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상호 영향이 핵심이다.
- ② the art of beauty shared between refined concepts → '아름다움' 중심이 아니라 '개념 간 상호작용'이 핵심이므로 초점이 어긋남.
- ④ the balanced union of religion and human form → 일부 내용(종교+인체 표현)만 반영한 부분적 해석으로 전체 구조를 반영하지 못함.
- ⑤ an interacting movement of physics and aesthetics → physics(물리학)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소재 자체가 틀림.

22.

해석: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면 즉시 계급에 의해 정의되는 위계 구조 속에 놓이게 되며, 이는 지도자와 추종자를 구

분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원들은 이 체제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은 한 철학 교수가 '리더십의 신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계급 중심의 조직 모델은 비밀주의를 조장하고, 의사소통을 왜곡하며, 업무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부패와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대안으로, 조직은 수평적 협력, 순환적 리더십, 개인의 강점 존중, 역할의 유연성을 증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경직된 위계보다 실제 조직의 강점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정답: ③ 조직의 리더십은 성장을 방해하고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해설:

글은 '리더십 자체'보다는 '위계적 리더십 구조의 문제'를 비판한다. secrecy, distortion, corruption 등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며, 이를 대체할 수평적 구조를 제시한다. 따라서 리더십(특히 위계적 리더십)이 문제를 낳는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오답 해설:

- ① 조직의 성과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위계 구조가 필요하다. → 글은 오히려 위계 구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정반대.
- ② 구성원 간의 협업을 위해 동료 의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 일부 대안 내용이지만, 글의 '핵심 주장'이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일 뿐.
- ④ 의사 결정 문제는 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 → 글의 중심은 '문제 → 변화'가 아니라 '위계 구조의 문제점' 자체이다.
- ⑤ 조직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계급에 유연성이 필요하다. → 조직 '간' 협업이 아니라 조직 '내부 구조'에 대한 논의이므로 범위가 틀림.

23.

해석: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그의 동료들은 자기 조절과 감정 대처에 관한 연구에서,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내적 성찰에서 벗어나 외부 자극에 몰입하는 활동으로 주의를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심리학 연구들은 불안, 외로움, 정서적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미디어 사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은 해석이나 비판적 사고를 요구하는 콘텐츠보다 반복적이고 익숙하며 노력이 적게 드는 콘텐츠를 선호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주의를 분산시키고 자기 인식을 약화시켜 일시적 안정을 제공하는 기능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미디어 사용은 여가라기보다 감정적 불편을 관리하기 위한 보상 전략으로 작용했다.

정답: ③ media consumption as an emotional coping mechanism

해설:

핵심은 '미디어 사용 = 감정 조절 수단'이다.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anxiety, loneliness 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따라서 정답은 감정 대처 메커니즘이다. 핵심 문장: "functioned less as leisure and more as a compensatory strategy" → 미디어 사용 = 감정 대처 전략.

오답 해설:

- ① emotional relief from entertainment media exposure → '결과(안정)'만 언급하고 '메커니즘(대처 전략)'을 반영하지 못함.
- ② media strategies shaping entertainment preferences → '미디어가 취향을 만든다'는 내용이 아니라 '감정 상태가 미디어 선택을 만든다'는 구조.
- ④ cognitive decline resulting from excessive digital stimulation → 인지 저하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음.
- ⑤ the principle of self-reflection with media engagement → 오히려 self-reflection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반대 내용.

24.

해설:

AI 연구 공동체는 개별 의사결정이 어떻게 선호로부터 도출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뿐만 아니라, 윤리적 계획의 구성에도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주어진 공리적 선호를 바탕으로 계획을 생성하는 데 집중해 왔지만, 그러한 선호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해석하여 계획 형식에 필요한 형태로 선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이러한 선호 분석은 특정 행위자나 시스템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범적 계획을 생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① From Preferences to Normative AI Architectures

해설:

글은 "선호의 기원 → 이를 분석 → 윤리적 계획 생성"이라는 흐름을 가진다. 즉, preference에서 시작하여 normative(규범적) AI 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핵심이다. 다른 선택지는 일부 요소만 반영하거나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 선호의 기원 문제 제기 → 데이터로부터 선호 생성 → 윤리적(규범적) 계획 생성 → "Preferences to Normative AI"가 정확히 일치.

오답 해설:

- ② Formalized Human Control: Needed in Moral AI → 인간의 통제(control)는 중심 내용이 아님.
- ③ New Ideology: How to Make Ethical Planning → '이데올로기' 언급 없음, 방향도 추상적이고 부정확.
- ④ The Advent of Human: Ethical Approaches with AI → '인간의 등장'이라는 표현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음.
- ⑤ A New Moral Agent : Transformation of AI → 'AI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선호 생성 과정과 계획 구조'가 핵심.

25.

해설:

위 그래프는 2023년, 2024년, 2025년에 유럽에서 고령자의 고용 비율을 직종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고용은 직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다. 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고령자의 시간제 근무 비율은 매년 감소하였다. ② 컨설턴트 직종은 3년 동안 고령자의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③ 고령자의 정규직 고용은 2024년이 2023년과 2025년보다 더 높았다. ④ 2025년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고령자는 제시된 전체 고용 유형 중 1/4보다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⑤ 자영업은 세 해 모두에서 고령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답: ④

정답 해설:

④ In 2025, self-employed senior citizens accounted for less than one quarter of all senior employment roles shown. → 2025년 self-employed는 28%로, 25%보다 크다. → 따라서 "1/4보다 적다"는 진술이 틀림. 틀린 부분 수정: less than one quarter → more than one quarter

26.

해설:

Dubravka Ugrešić는 민족주의, 망명,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으로 알려진 크로아티아의 작가이자 수필가이다. 그녀는 1949년 당시 유고슬라비아의 일부였던 쿠티나에서 태어났다. 비교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자그레브 대학교에서 강의했으나, 반민족주의적 견해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대중의 적대감 때문에 1990년대 초 크로아티아를 떠났다. 이후 그녀의 많은 작품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며 쓰여졌다. 그녀의 글은 전통적인 국가 중심 서사보다 이주, 아이러니, 문화적 소속감의 취약성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녀의 에세이와 소설은 특히 서유럽과 미국에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정답: ③

해설:

③ 민족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 본문: anti-nationalist views (반민족주의) → 따라서 완전히 반대 내용 → 오답

27.

안내문 해설:

Egypt Discovery Tour Package
고대 이집트의 경이로움 속으로 떠나는 여행 일정(Schedule)
● 오전 9시에 대피라미드 근처에서 시작
● 오후 3시에 스�핑크스에서 종료
● 성인 1인당 150달러
세부 사항(Details)
● 예약은 온라인 가능
● 확인은 이메일로 제공
● 3일 이내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유의사항(Note)
● 마지막 도착은 허용되지 않음
● 현장에서는 티켓 구매 불가
● 참가 인원 제한 없음

정답: ⑤

해설:

⑤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 안내문: "No ticket purchase allowed at the site" (현장 구매 불가) → 내용 완전히 반대 → 오답

28.

안내문 해설:

2024 School Club Expo Contest
학교 동아리 박람회 경연
동아리의 창의성과 혁신을 보여라
주제: 동아리 활동 시연
● 전시를 접수: 5월 10일 ~ 6월 30일
● 전시는 반드시 직접 발표
● 각 동아리는 전시물 1개만 제출 가능

상금(Prizes)

- 1등: 1명 - \$3,000
- 2등: 2명 - \$2,000
- 3등: 3명 - \$1,000
- ※ 늦은 제출은 접수되지 않음

정답: ④

해설:

④ 수상자는 총 3명이다. → 실제: 1 + 2 + 3 = 총 6명 → 따라서 "총 3명"은 틀림

29.

해설:

공통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장기적인 제도 발전에 필수적이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책임을 지닌 사람들은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정은 명확한 기대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들이 독립적으로 기여하면서도 아이디어를 교환하도록 장려하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동시에, 감독자들은 제안된 계획들이 더 넓은 운영 계획과 논리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일관성은 대체로 의사소통에 의존하는데, 이는 지속적인 협의와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유지될 때 부서 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만약 목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혼란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지연과 참여자들 간의 약화된 협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조직은 질문이 환영받고, 건설적으로 제공될 때 피드백이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익하다. 따라서 리더들은 개인의 노력이 공동의 우선순위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당된 업무를 자주 검토한다.

정답: ③ X

정답 해설:

③ reducing → reduces
→ 주어는 앞의 which(= communication) → 단수
→ 동사는 reduces가 맞다.

오답 해설:

- ① which → 관계사로 앞의 settings를 적절히 수식 → 맞음
- ② required → 수동태 구조 적절 → 맞음
- ④ weakened → 분사 형용사로 cooperation 수식 → 맞음
- ⑤ leads → feedback(불가산 단수) → 동사 단수 맞음

30.

해설:

21세기는 교육과 교수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산업 문명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교사의 지시에 대해 수용적인 청중으로서 기능했다. 교육학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양육은 젊은 세대를 삶에 더 잘 준비시키기 위해 의도된 하향적 사회적 영향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좁은 교육학적 의미의 양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미리 정해진 집단적 특성이 의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사람을 특정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러한 의도적인 과정은 혁신적이고 관용적인 교육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형의 교육은 개인이 상호 의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학습과 자기 개선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며, 자신의 특성을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 문명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이러한 과정은, 혁신적 교육의 목적이 획일화 없이 인간 발전의 전반적인 향상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정답: ⑤

정답 해설:

⑤ relevant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ivilization

→ 글은 "전통 산업 문명 → 새로운 교육 변화" 흐름
→ 새로운 교육은 산업 문명과 대비되는 개념
→ 따라서 "industrial civilization의 발전에 관련"은 문맥 상 부적절

오답 해설:

- ① receptive → 교사의 지시를 받는 존재로 적절
- ② social influence → 교육의 기능 설명으로 적절
- ③ collective attributes → 집단적 특성 배제 맥락과 일치
- ④ interdependent abilities → 협력적 능력 강조로 적절

31.

해석:

개인주의에 의해 형성된 사회, 예를 들어 호주와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말로 하는 설득이 주요한 협상 도구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많은 아시아 문화와 같은 집단주의적 배경을 가진 협상가들은 문화 간 협상 상황에서 암묵적 단서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더 크게 의존한다. 실제로 협상가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 더 강하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침묵은 두드러진 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경향은 브라질 사람들과의 협상에서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일본인과 협상할 때는 미국인에게 상당한 불리함을 초래한다. 미국인들은 이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더 밀어붙이거나 가격을 낮추는 등의 조정을 제시함으로써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인들이 제안을 조용히 숙고하는 동안, 상대방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을 _____의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가 행동을 취한다.

정답: ② agreement

정답 해설:

일본인의 침묵 = 거절이 아니라 숙고(긍정 가능성 포함)
→ 미국인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양보
→ 따라서 "agreement의 신호"로 해석 못하는 것이 핵심

오답 해설:

- ① rejection → 거절이라면 추가 양보를 할 필요 없음
- ② strategy → 상대가 전략적으로 침묵을 사용하고 있다는 글의 내용이 아님. 일본 사람들과 미국인들의 성향적 차이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antipathy → 반감의 의미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조정을 취하는 것이다. 정답과 반대되는 단어이다.
- ⑤ relationship → 관계 신호 아님, 협상 상황

32.

해석:

번역에서 지배적인 관점은 _____을 자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는 생각, 감정, 의도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 그 의미가 예고 없이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번역가들은 때때로 그 불확정성을 대화상의 이점을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의적인 표현에 대해 하나의 확정된 해석에 전념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맥락과 독자에 의해 활성화되고 조절된다. 각각의 단어는 변화하는 인지적 맥락의 집합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많은 개념적 정보를 포함하고 다양한 개념 영역과 관련되는데, 이들이 함께 특정 의미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용 가능한 맥락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지적 지원이 약할 경우, 번역 오류의 가능성은 그에 따라 증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가 확정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믿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① the recognition of language clarity

정답 해설:

빈칸 아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예고없이 변화하는 것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의미가 변화하지 않음, 고정되어 있음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핵심지문 : "not to refrain from ~" → ~을 피하지 않는다

- 언어는 변동성과 불확정성을 가지지만
- 번역가는 언어의 명확성(확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 따라서 'clarity 인식'이 가장 적절

오답 해설:

- ② reader interpretation → 일부 내용이지만 핵심이 아님
- ③ textual flexibility → 유연성은 의미에 불확정성 자체를 의미, 반대 방향
- ④ profound expression → 표현의 깊이와 무관
- ⑤ subjective interpretation error → 주관적 해석 오류 자체가 중심 소재가 되지 못한다

33.

해석

예술이 재현을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포기했을 때에만, 진보는 과학의 필수적인 특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학사학자 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과학적 진보'는 우리가 _____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풍부하게 보인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진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정성과학의 시기에 있는 과학자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데, 이는 그들이 근본적인 가정을 의문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그 결과, 받아들여진 패러다임에 기반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고, 진보는 명확하고 연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쿤에 따르면, 그러한 진보는 과학이 본질적으로 진리에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누적적 진보를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그 자체로 지닌 과학 공동체 안에서 수행된 활동의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는 묻는다. "그 집단이 그들의 승리의 결과가 진보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답

① reinterpreting results as causes of scientific progress

정답 해설

이 글의 핵심은 다음 구조다: 과학의 '진보'는 실제 진리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안에서 결과 (진보)를 계속 반복 축적하며 마치 계속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즉 우리는 "이미 확인된 결과가 쌓인 것"을 → "진보의 원인/증거"로 착각한다. 그래서 문장의 첫 번째 지문에서 재현을 포기해야 과학의 진보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재현을 진보로써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암시한다.

따라서 빈칸은

"결과를 진보의 원인으로 다시 해석하는 것"

오답 해설

- ② regarding scientific truth as the secondary goal → 글은 '진리가 부차적 목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 이 글의 핵심은 목표가 아니라 진보 개념의 착각
- ③ integrating scientific methods from artistic practices → 예술 언급은 도입일 뿐

→ 과학 방법과 예술 통합은 전혀 논의되지 않음

④ evaluating progress by reference to objective reality

→ 쿤은 오히려 "객관적 진리에 가까워졌다"는 해석을 부정 → 방향이 완전히 반대

⑤ questioning the cumulative nature of scientific knowledge → 그럴듯하지만 틀림, 글은 '누적을 의심하라'가 아니라 '누적을 진보로 착각하는 인식'이 문제

34번

해석 (정확한 직역)

생명의 나무의 많은 부분이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와 연구 방법의 사용을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왔지만, _____한 영역들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장 충돌이 심한 유전적 계통 문제들은 매우 오래된 진화적 분화의 기저에서 발견되는 짧은 가지들에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관계를 추적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비교되고 있는 종들이 단지 아주 멀게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유하는 유전자들, 즉 상동 유전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그 결과 그것들은 서로 매우 다르게 되었다. 그 결과, 실제로 비교될 수 있는 유전자들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 서열을 정확하게 정렬하는 것 또한 어려워지는데, 이 둘 모두는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축적된 차이는 진화 모델이 실제 데이터에 잘 맞지 않도록 만들고, 모델이 그것이 설명하려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때, '긴 가지 끌림'이라고 알려진 오류를 만들어 낸다.

정답

① altered distant relatives are under one roof

정답 해설

이 글은 생명의 나무에서 일부 영역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the most conflicting genetic lineage problems appear in short branches found at the base of very old evolutionary diversification"라고 하여, 매우 오래된 진화 분화의 기저에서 관계 추적이 가장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the species being compared are only remotely related" 즉, 비교되는 종들이 서로 매우 멀리 떨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들이 공유하는 "orthologous genes have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over long periods of time," 즉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어 서로 매우 달라지게 된다. 그 결과 "it becomes difficult not only to determine which genes can truly be compared, but also to accurately align their gene sequences"라고 하여, 어떤 유전자가 비교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뿐 아니라 유전자 서열을 정확하게 정렬하는 것조차 어려워진다. 이러한 "accumulated discrepancies"는 결국 "prevent evolutionary models from fitting the actual data well"하게 만들며, 이는 분석 오류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글은 멀리 떨어진 종들이 오랜 시간 동안 변형되어 서로 다른 상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변형된 관계가 정확한 비교와 분석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한 선택지는 "altered distant relatives are under one roof"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altered distant relatives) 변화까지 겪은 대상들이 하나의 분석 틀 안에 함께 놓이면서(under one roof) 비교와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답 해설

- ② nearby species are sometimes grouped apart → 이 선택지는 '가까운 종(nearby species)'을 전체로 하지만, 본문은 "remotely related" 즉 서로 멀리 떨어진

중들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 대상 자체를 잘못 이해한 선택지이다.

③ similar genes are often excluded from models
→ 본문은 유전자들이 "substantial changes"를 겪어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고 설명할 뿐, 유전자가 모델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이 근거 없이 확장된 오답이다.

④ changed relation hinders proper differentiation
→ 관계 변화로 인해 분석이 어렵다는 방향성은 일부 맞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remotely related species"와 "substantial changes over long periods of time"라는 핵심 조건이 반영되지 않아 구체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

⑤ faster mutation indicates long distance relation
→ 본문은 유전자가 오랜 시간 동안 변화했다는 사실만 언급할 뿐, 돌연변이 속도(faster mutation)에 대한 설명이나 그것이 관계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거 없는 추론이다.

35번

해설

국제 무역은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지역 특화를 장려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종종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① 온라인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지역들은 지역 산업이 그들의 즉각적인 경계를 넘어 상품을 수출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성장을 경험해 왔다.

② 증가된 온라인 무역 활동은 공정한 계약 조건 하에서 활발한 투자를 장려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내에서 향상된 기반 시설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③ 이러한 활동들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외부 수요에 대한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 경제를 강화한다.

④ 또한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은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 관행을 개선하도록 해왔다.

⑤ 그 결과, 그러한 무역 활동은 지역이 온라인 경제 확장을 강화하고 나아가 오프라인 및 장기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는 원동력으로 자주 여겨진다.

정답 ④

정답 해설

이 글은 국제 무역이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의 상승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흐름 속에서, 시장 확대, 투자 증가, 수요 확대 등 무역의 직접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④번 문장은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도입과 경영 방식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온라인의 효과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업 내부의 운영이나 관리 측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글 전체가 유지하고 있는 '무역(온라인) → 지역 경제 성장'이라는 중심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 해당한다.

36번

해설

최근 몇 년간 일부 실험 연구들은 새들의 비행 궤적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주로 물리학적 관점에서 작동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의 대부분을 밝혀냈다.

(C)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찌르레기 부리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험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연구자들은 부리 전체가 이동 방향을 조화롭게 바꾸는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하였다.

(A)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부리의 제한된 특정 영역에서 시작되는 집단적 방향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보통 소수의 개체에서 시작되며, 포식자의 접근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발적으로 발생한다.

(B) 실제로 공중에서의 군부 동안 찌르레기 부리는 포식자나 물리적 장애물이 없는데도 이동 방향을 자주 바꾼다는 것을 그 연구자들은 발견한다. 한 개체가 방향 전환을 시작하면, 그 정보는 국지적으로 머무르지 않고 파동처럼 부리 전체로 퍼져 나간다.

정답 ④ (C) → (A) → (B)

해설

이 글은 연구 사례 제시 → 연구 대상의 구체화 → 관찰된 현상의 설명이라는 논리적 흐름을 따른다. 먼저 (C)는 로마에서 수행된 찌르레기 실험을 소개하며, 앞문장에서 언급된 '실험 연구들' 가운데 하나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배경과 실험적 맥락이 명확해진다. 다음으로 (A)는 해당 실험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집단적 방향 전환이 부리의 일부에서 시작되고 외부 자극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밝혀, 이후 제시될 행동 설명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B)는 이러한 집단적 방향 전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을 서술한다. 방향 전환 신호가 한 개체에서 시작되어 파동처럼 부리 전체로 퍼져 나간다는 설명은 앞서 정의된 개념을 구체적인 관찰 결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문단 배열은 (C) → (A) → (B)이다.

오답 해설

이 글은 (C)에 찌르레기라는 실험의 구체적인 대상이 처음 등장하고 (A)와 (B) 문단에 찌르레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A) 또는 (B)를 첫번째 문단에 위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C)에 등장한 연구자들이 (B) 지문에서 등장하지만 (A) 지문에서도 그들의 관심이라는 표현속에 등장한다. 그러므로 연구자라는 단어로 (B)가 바로 위치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내용의 흐름상으로 보았을 때 (B) 지문에서는 연구 결과로서 정보의 전파에 대해 설명하는데 (A)의 내용은 그러한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B) 뒤에 (A) 문단을 위치시킬 수 없다.

37번

해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비상사태나 위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기와 여러 측면에서 다르며, 그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의 리더십 과제 역시 형태상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C) 위기 상황에서 위기 소통은 공중보건의 지도자에게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약점은 종종 비효율적인 위기 관리로 이어지고, 사전에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지를 점검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리더십상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A) 위기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지도자 간의 공식적인 조직 체계가 부족할 경우 소통이 저해될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기가 전개됨에 따라 새로운 전략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B)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자들은 자원 배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해 새로운 요구 사항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양한 출처로부터의 지원이 제공되어 피해를 입은 집단과 지역사회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주요 단어

diverge : (형태·방식이) 갈라지다, 달라지다

hamper : 방해하다, 저해하다

withhold : (정보를) 제공하지 않다, 숨기다

accustomed to : ~에 익숙해진

vulnerability : 취약성

정답: ④ (C) - (A) - (B)

해설

이 문항은 '지속적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흐름에 따라 배열하는 문제이다. 먼저 문장에는 (A)와 (C)가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C)에 crisis communication assumes a continuous role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속적 위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핵심 요소(위기 소통의 중요성)를 일반화하여 제시한다. 이는 도입 문장에서 말한 ongoing emergency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이후 구체적 문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그 다음에는 (A)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A)는 (C)에서 언급한 소통의 중요성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봉회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a lack of formal organization과 withhold information은 (C)의 weaknesses in this process를 실질적으로 풀어쓴 내용이다. 동시에 (A)의 후반부는 Yet을 통해 상황의 전환 가능성을 암시하며 다음 문단을 예고한다. (B)는 (A)의 끝부분에서 new strategies do not necessarily pose additional difficulties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B)는 지도자들이 정보 축적을 통해 새로운 요구에 익숙해지고, 외부 지원이 늘어나며 취약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설명함으로써, 지속적 위기에서 점진적 안정 단계로의 이동을 완성한다. 따라서 전체 흐름은 일반 원칙 제시(C) → 문제 발생(A) → 시간 경과에 따른 완화와 적응(B) 라는 논리적·시간적 전개를 이루며, 정답은 ④번이다.

도입 문장에서 시작되는 내용이 (A)와 (C) 지문의 첫번째 문장과 이어지지만 이 글에서의 핵심은 (A) 지문의 마지막 문장이 (B) 지문의 첫번째 문장과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B)문장의 마지막 문장이 (C)지문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B)가 (A)또는 (C)의 앞쪽에 위치해 있거나 (B)가 문장 가장 앞에 위치한 선지들은 모두 오답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38번

해설

대륙 이동의 진정한 본질을 밝히는 일은 지구과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난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약 80년 전, Arthur Holmes는 대륙 이동의 메커니즘으로 맨틀 대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약 50년 전에는 대륙 이동설이 판 구조론으로 수정되었고, 이 이론은 맨틀 대류를 포함하게 되었다. ① 그러나 '중성 부력(neutral buoyancy)'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맨틀 대류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된다. ② 맨틀 대류 이론에 따르면, 가열된 맨틀 물질은 열팽창으로 인해 밀도가 낮아지면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③ 결국 이 이동하는 물질은 주변 맨틀과 밀도가 같아지는 깊이에 도달하면 멈추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중성 부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한 연구는 실제 맨틀 조건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 가정을 반박한다. ④ 이 이론에 따르면, 이는 상승하는 어떤 물질들이라도 필연적으로 열을 잃고 기계적인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⑤ 따라서 그 물질들은 이론적으로 계산된 중성 부력 수준에 도달하기 훨씬 이전에 부력을 모두 소진하고 말게 되어 중성 부력을 성취할 수 없다.

정답 : ③

해설

이 글은 과거 Arthur Holmes가 대륙 이동의 원인으로 맨틀 대류 개념을 도입했고, 이후 이 개념이 판 구조론의 핵심 요소로 받아들여졌다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

뒤 맨틀 대류 이론에 대한 설명에서 가열된 맨틀 물질이 열팽창으로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상승하고 이때 더 이상 위로 뜨지도 가라앉지도 않는 상태 즉 중성 부력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글의 핵심은 바로 이 전제가 실제 맨틀 환경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 맨틀에서는 상승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열을 잃게 되고, 동시에 주변 물질과의 마찰로 인한 기계적 저항을 받는다. 그 결과 해당 물질은 계산상 도달해야 할 중성 부력 깊이에 이르기 훨씬 이전에 이미 상승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관 구조론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여져 온 맨틀 대류 개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대륙 이동설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물리 조건을 반영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독자를 이끈다.

오답분석

①번 지문은 중성부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정답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삽입문은 결국이라는 말을 통해 위의 지문 내용을 위 지문이 시간 순서적으로 원인에 해당하고 삽입문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결과로 이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인과적인 순서로 ②번 뒤쪽에 삽입문이 위치되어야 한다. ④번 지문 이후에는 중성부력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맨틀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④번과 ⑤번은 삽입문의 내용과 상반되어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39번

해석

수리라는 기술·경제적 실체는 제품의 사용 가능한 수명을 연장하게 하며, 그 결과 교체의 필요성을 지연시킨다. ① 이러한 이유로 수리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지구의 한계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순환경제(CE)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②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수리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③ 수리는 또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④ 소리가 신중한 정책에 의해 안내되지 않는다면, 저렴한 접근성은 사람들이 더 많은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소비 증가를 자극할 수 있다. 수리와 관련된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당국은 세계 혜택과 에코디자인 규제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⑤ 예를 들어, EU의 에코디자인 정책은 분해를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해 제품의 수리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정답 : ④

해설

제시 문장은 수리가 정책적 지원 없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즉 저렴한 접근성이 오히려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본문은 먼저 수리의 긍정적 측면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제품 수명 연장 → 순환경제에서의 핵심적 역할 → 디지털 기술에서의 가격 접근성 → 평등한 접근성 확보라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 긍정적 설명 뒤에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환이 나오고,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제시된다. 이 뒤에 삽입문이 들어가서 특히 정책에 지침이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④번 지문은 그 내용을 받아 국가 당국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예시가 그 뒤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정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암시하는 ④번 위치에 삽입되는 것이 글의 논리 전개상 가장 자연스럽다.

40번

해석

소설과 단편 소설은 읽히기 위해 만들어지며, 독자들이 페이지 위의 텍스트를 직접 멈추고, 다시 읽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 대본은 공연되기 위해 쓰이지만, 대사와 무대 지시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 배우, 움직임, 그리고 장면을 여전히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영화는 시각적 이미지, 카메라 움직임, 음향 효과, 그리고 타이밍과 같은 요소들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오직 글로만은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침묵의 정지, 갑작스러운 클로즈업, 또는 배경 음악은 대사가 동일하더라도 장면의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제거되면 의도된 효과의 많은 부분이 사라진다. 그 결과, 영화를 보지 않고 대본만 읽는 것은 전체 경험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많은 경우에, 대본은 관객이 이미 영화를 본 이후에야 주로 의미를 갖게 된다.

정답

③ visuals released

요약문 해석

소설이나 연극과 달리, 영화 대본은 시각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읽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것이 공개되어 실제로 구현된 이후에야 의미를 갖게 된다.

정답 해설

(A) visuals

→ 본문 해석:

“visual images, camera movement, sound effects, timing”

→ 특히 영화는 시각적 요소 중심 매체

→ 따라서 visuals가 정답

(B) released

→ 본문:

“after viewers have already watched the film”

→ 즉 영화가 실제로 구현되어 공개된 이후

→ released(개봉된 후)가 가장 적절

(C) 구조

영화 대본 = 시각 요소 의존

→ 읽기만으로 이해 불가

→ 실제 영상으로 구현된 이후 의미 형성

오답 해설

① senses published

→ senses는 너무 포괄적이며 본문은 특히 “visual” 강조

→ published는 “책 출판” 느낌으로 영화 맥락 부적절

② imagination watched

→ imagination은 오히려 소설/연극 특징

→ 영화는 imagination이 아니라 visual 전달

④ narration intended

→ narration은 이야기 전달 방식

→ 본문은 시각/영상 요소 문제

→ intended는 의미 형성 시점과 맞지 않음

⑤ conditions analyzed

→ conditions는 의미 불명확

→ analyzed는 “분석”이지 “경험/관람”과 무관

41번~42번 장문독해1

해석

가상 인류학에서, 디지털 매체 기술들은 단순히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석 증거가 이해되는 해석적 경계를 적극적으로 재조정하여 불완전한 표본을 점점 더 (a) 해석 가능하게 만든다. 양측 대칭에 기반한 미러 이미징과 알고리즘적 조정을 통해 왜곡을 체계적으로 수정하는 기하학적 워핑은 이제 단순한 기하학적

근사치가 아니라 매우 정교한 (b) 확률적 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작동한다.

또한 현존 중에서 관찰되는 변이 패턴으로부터 얻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연구자들은 단순히 성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능한 발달 경로를 재구성하는 예측 모델을 구축한다. 이는 (c) 결보기에는 훼손된 화석 자료에 의존하더라도 두께의 형태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작거나 편향된 표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석적 한계를 완화하기 위해, (d) 부족하고 단편적인 유해를 다룰 때에는 여러 통계적 보정이 적용된다. 초기 추정에는 종종 현대의 유사한 대상과의 회귀 기반 비교를 통해 신체 지표를 외삽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화석 해석은 경험적으로 근거 있는 기준점에 고정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계산적 접근법은 발달 경로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며, 어떤 개체가 그 종의 (e) 불충분한 진화적 연속성을 따라 어떻게 생수했는지를 예측한다.

41번

정답

② Computational modeling expanding the approach of fossil

정답 해설

이 글은 가상 인류학에서 디지털 기술과 계산적 모델링이 화석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해석의 범위 자체를 확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특히 “readjusting the interpretive boundaries”, “probabilistic modeling systems”, “predictive models”, “simulation of developmental pathways”와 같은 표현들은 기존 화석 연구 방식이 단순 관찰에서 벗어나 계산적 모델을 통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은 계산적 모델링이 화석 연구의 접근 방식을 확장한다는 데 있으며, 이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선택지가 ②이다.

오답 해설

① The digital reconstructions replacing fossil evidence

→ 디지털 기술은 화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보완·확장하는 역할이므로 부적절하다.

③ The methods limiting anthropological fossil research

→ 글은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④ Factors improving fossil preservation and discovery → 화석의 보존이나 발견이 아니라 ‘해석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⑤ The issue of declining fossil evidence in anthropology

→ 화석이 감소한다는 문제 제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42번

정답 ③ ©

정답 해설

(c) “seemingly degraded fossil inputs”는 문맥상 부적절하다. 글은 디지털 모델링과 통계적 보정을 통해 불완전한 화석 자료조차도 해석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결보기에 ‘훼손된(degraded)’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훼손된 화석 자료라 하더라도 분석과 비교를 통해 활용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문두에 불완전한 표본이라고 언급해두었다. 결보기에는 훼손되었다면 실제로는 훼손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면 글의 방향은 결기로 보기에 훼손되었지만 내면적인 분석을 통해 온전한 부분을 드러나게 한다는 식으로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어 버린 화석 자료를 통해서도 AI가 부완이 아니라 해석적 경계를 조정하여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즉 앞 문장에서 이미 “incomplete specimens progressively interpretable”라고 하여 불완전한 자료도 해석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결보기에 훼손된이라는 표현은 글의 보완적 (완전히 파손되었기에 그 틈새에 보완이 필요) 맥락과 어긋난다. 따라서 (c)는 문맥상 부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a) interpretable

→ 불완전한 화석이 점점 더 해석 가능해진다는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② (b) probabilistic

→ 단순 기하학이 아닌 확률 기반 모델링이라는 설명과 일치한다.

④ (d) scarce

→ “scarce and fragmentary remains”는 화석 자료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표현이다.

⑤ (e) insufficient

→ 불완전한 진화 정보 속에서 경로를 추정한다는 맥락에서 사용 가능하다. 훼손된 화석과 일맥 상통하는 표현이다.

43번~45번 장문독해2

43~45

해석

(A)

민서는 자신의 후배 지은이 작은 밀폐 용기들을 가지고 실험실을 반복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알아차렸고, (a) 그녀의 움직임은 통제된 실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인공 조명은 멸균된 유리 표면에 희미하게 반사되었고, 모니터링 장비의 조용한 웅웅거림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테이터 콘솔 근처에 앉아 있는 동안, 지은은 제한된 저장 구역 근처에서 멈추었고, 그녀의 시선은 주요 작업 구역 너머의 어둡게 조명된 구석 안에서 즉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C)

그 안에는 온도 변화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격리된 일련의 취약한 생물학적 샘플들이 있었다. 지은은 용기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조정하며, 교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노출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조용히 지켜보던 민서는 (c) 그녀가 표준 절차 밖에서 문서화되지 않은 점검을 수행해 왔으며, 엄격한 일정과 기관의 압박 속에서 진행 중인 분석을 지연시킬 수 있는 불완전한 데이터를 보고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D)

그날 저녁, 지은은 정기 팀 회의에서 (d) 그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주저함 없이 설명했다. 그녀는 샘플들이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열화의 징후를 보여 왔으며, 비공식적이었지만 즉각적인 개입이 그들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서는 주의 깊게 들으면서, (e) 그녀의 설명 속에서 단순한 역할 수행을 넘어서는 책임감을 인식했는데, 그것은 반복된 관찰, 독립적인 판단, 그리고 확인이 요구되기 전에 행동하려는 의지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B)

다음 날, 민서는 작업 공간의 일부를 재정리하고,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저장 구역 근처에 단열 재료를 도입하고 공기 흐름을 조정했다. 지은은 작은 변화도 샘플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한 채 샘플에 접근했다. 모니터링 지표가 변동이 줄어들 것을 보여주자, (b) 그녀는 안도한 듯 보였다. 그녀를 지켜보며, 민서는 시간이 지나도록 지속되는 세심한 주의가 종종 형식적인 시스템과

절차의 경직성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43번

정답

③ (C) → (D) → (B)

해설 (논리 흐름)

(A): 이상한 행동 발견 (문제 제기)

→ “무엇을 하고 있는가?”

(C): 그 이유 밝혀짐 (샘플 문제 + 비공식 행동)

→ 상황 설명

(D): 지은의 공식 설명 → 의미 정리(

→ 문제 해결 과정

(B): 민서가 환경 개선 → 결과 안정

→ 마무리

관찰 → 원인 → 해결 → 설명

44번

정답

④ (d)

해설

(a) 그녀 → 지은

(b) 그녀 → 지은

(c) 그녀 → 지은

(e) 그녀 → 지은

하지만

(d) her → 민서

→ “explained her actions to her”

→ 앞 her = 지은 / 뒤 her = 민서

45번

정답 ②

해설

② 샘플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험실 환경을 재구성하였다.

→ 환경 재구성은 Minseo(민서)가 한 행동

→ Jieun(지은)은 샘플 위치 조정 및 비공식 점검 수행

주체 혼동 → 틀린 선택지